

##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양진주\*·박미영\*\*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다양한 건강상태의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 이론을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임상실습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권인수, 2002).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와 관련된 실무 상황의 복잡성, 불확실성,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므로써 전문직에 적합한 사고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임상실습시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부족이 간호교육의 문제점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이원희 등, 1998; 이정희, 성영희, 정연이 및 김정숙, 1998), 간호실무가 질병의 다양화 및 복잡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주입 받은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간호학생이 대상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ssenich, Guyatt와 DiCenso(1997)는 폐쇄적이고 주입적인 기존의 간호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도전을 준비시킬 수 없고, 간호 실무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간호학생들이

스스로 많은 학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고 획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며, 특히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여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훈련하고 수행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현장 학습이 되어야 한다.

간호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자율 학습을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간호학생들의 지식, 기술 및 전문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며(Patterson, Crooks & Lunyk-Child, 2002),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인 혼돈과 좌절 및 불만족 등을 없앨 수 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Lunyk-Child, Crooks, Ellis, Ofosu, O'Mara 및 Rideout, 2001).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한 연구는 성인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적인 변수에 관한 연구(유귀옥, 1997)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간호학생

\* 평주보건대학 간호과

\*\* 순천청암대학 간호과

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간호 실무 현장에서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의 주체인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 향상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를 확인한다.
- 2)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임상수행능력

간호학생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이 다양한 임상장소에 따라 어떻게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를 의미한다(이원희 등, 1990). 본 연구에서는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한 도구와 김분한 등(1998)의 연구에서 제시한 임상수행능력을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한 19문항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2)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며, 자원을 선택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수행하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학습자 주도의 과정이다(Slusarski, 1994).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유귀옥, 1997에 인용)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측정도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유귀옥(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문헌 고찰

현대는 과학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보화 및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

한 소비자의 권리의 의식이 증가되고 있다. 간호교육계는 이런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생의학적 관점을 가진 건강관리 모델은 실무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무에서 간호 학생이 수행해야 할 임상수행능력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촉구하였다(유경희 등, 2000).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나타내고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Barrett & Myrick, 1998)으로 임상실습교육시 간호교육자나 실무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간호의 효과적인 수행을 의미한다(이원희 등, 1990). 스웨덴에 있는 일개 대학의 연구결과, 임상실습교육은 전문적 태도, 성찰 과정, 문제해결 과정, 실무 기술이 핵심 개념으로, 학생들은 미래의 전문적 간호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을 접해야 하고, 문제해결, 성찰, 의사결정 및 귀납적이나 연역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임상실습교육은 학습 환경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간호 관리자와 실습 관련 교수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돕도록 해야 한다(Jerlock, Falk, & Severinsson, 2003). 그러므로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목표를 획득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키워서 전문직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과 탐구의 방법을 배워야 하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술과 전문가의 사고를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권성복, 지성애와 정경님, 2002).

최근 간호교육은 이런 스스로 학습과 탐구의 교육방식을 촉진하는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이나 근거-중심간호(Evidence-based Nursing: EBN)를 적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싶어하고(Hiemstra, 1994), 교수자의 역할은 내용전문가라기보다 촉진자나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주는 사람으로 활동할 때 최적의 학습이 일어난다고 한다. 또한 간호사 및 간호학생들은 실무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해결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실무 경험을 타당화시키고, 실제 사례와 관련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임상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과 환자간호결과에 대한 학습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의 통합이다(Schmidt & Fisher, 1992).

포커스 그룹 연구방식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을 인터뷰 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책임감을 증가시켰고,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인 혼돈과 좌절 및 불만족 등이 사라지고 평생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났으며, 교수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Lunyk-Child, et al., 2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기주도적 학습과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간호학생이며 광주, 전남 지역에 소재한 2개 간호과 2학년 학생으로 근접모집단으로 하였다. 이들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하고, 3차 교육병원을 포함하여 종합병원에서 12주 동안 실습한 189명을 임의 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와 김분한 등(1998)이 제시한 과목별 임상수행능력을 근거로 24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 문항들 중 간호학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의뢰하여 적절하지 않은 4문항을 삭제하였고,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관계가 0.4 이하인 1문항을 제거하여 총 19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로 최종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18$ 이다.

##### 2) 자기주도적 학습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측정도구는 Guglielmino(유귀옥, 1997)에 인용)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검사(SDLRS)를 토대로 유귀옥(1997)이 번안하고 수정한 문항으로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32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에게 예비문항의 신뢰도를 조사하여 전체문항과 상관관계가 0.3 이하인 7개의 문항을 제외시켜 25문항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5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902$ 이다.

####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189명의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189부 중에서 미 응답이나 부적절하게 기재된 7부를 제외한 182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전공 및 실습관련 특성은 기술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는 기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전공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차이는 각각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전공 및 실습 관련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여학생으로 평균 연령은

<표 1> 대상자의 전공 및 실습 관련 특성

(N=182)

변수	구분	빈도 (%)
입학 전 간호사 이미지 형성요인	대중매체	76 (41.8)
	입원 또는 병원 방문시	70 (38.5)
	가족이나 친지중의 모습	36 (19.8)
간호와 입학동기	취업률 고려	89 (48.9)
	부모님, 선생님, 선배의 권유	62 (34.1)
	적성을 고려	25 (13.7)
	대중매체를 통해 (TV 또는 라디오 광고, 신문, 서적)	6 (3.3)
병원에서 실습 중 어려웠던 대인관계	간호사	114 (62.6)
	의사	43 (23.6)
	환자 및 보호자	25 (13.7)
간호학 전공 적응 정도	잘 적응하고 있다	26 (14.3)
	대체로 적응하고 있다	135 (74.2)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21 (11.5)

21.3세 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간호과에 입학하기 전에 간호사 이미지를 대중매체(41.8%)에서 가장 많이 형성하였고, 입원이나 병원 방문시 38.5%, 가족이나 친지중의 모습 19.8%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과 입학동기는 취업을 고려한 경우가 48.9%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부모님, 선생님 및 선배의 권유가 34.1%, 적성을 고려한 경우 13.7% 였고, 대중매체를 통한 경우는 3.3%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들이 실습하던 중 어려웠던 대인관계는 간호사인 경우가 62.6%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의사가 23.6%, 환자 및 보호자가 13.7%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학 전공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응하고 있는 경우 74.2%로 약 2/3를 차지하였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11.5%로 나타났다<표 1>.

##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평점이 3.19로 나타나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의 요인분석 결과 6개의 하부요인으로 나뉘었고, 각

하부 요인별 평점을 비교해 보면 제 1요인 간호과정은 3.24, 제 2요인 주요 간호중재는 3.18, 제 3요인 심리·사회적 간호는 3.20, 제 4요인 간호교육은 3.15, 제 5요인 관찰과 신체사정은 3.02, 제 6요인 기본간호는 3.27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본간호와 간호과정의 수행능력이 다른 수행능력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는 3.59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2>.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

대상자의 전공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는 전공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대체로 적응하고 있거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임상수행능력( $F=3.406, p=.035$ )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 $F=7.444, p=.001$ )를 나타냈다<표 3>.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하부요인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는 <표 4>와 같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r=.367, p=.001$ ).

## <표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임상수행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r=.367^{**}$

\*\*p <.001

<표 2> 임상수행능력 하부영역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 (N=182)

변수	평균 평점	표준편차
임상수행능력	3.19	0.41
간호과정	3.24	0.56
주요 간호중재	3.18	0.59
심리 사회적 간호	3.20	0.67
대상자 교육	3.15	0.52
관찰과 신체사정	3.02	0.65
기본간호	3.27	0.52
자기주도적 학습	3.59	0.46

<표 3> 대상자의 전공 및 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의 차이 (N=182)

변수	구분	임상수행능력		F	p	자기주도적 학습		F	p
		Mean	SD			Mean	SD		
간호과 입학 전	대중매체	59.79	7.02	.672	.512	88.50	11.33	.878	.417
간호사 이미지	입원 또는 병원 방문	61.06	8.73			90.01	11.01		
형성요인	가족이나 친지중의 모습	61.31	7.59			91.47	12.38		
간호과 입학동기	적성	62.56	7.41	.901	.442	92.76	10.41	1.171	.322
	부모님, 선생님, 선배의 권유	60.66	7.84			90.21	13.01		
	취업률 고려	59.84	7.95			88.28	10.49		
	대중매체를 통해 (TV 또는 라디오 광고, 신문, 서적)	62.33	7.12			91.83	10.26		
병원에서 실습 중	간호사	60.31	8.32	1.086	.340	90.06	11.82	1.884	.155
어려웠던 대인관계	의사	62.00	7.57			90.95	11.28		
	환자 및 보호자	59.36	5.36			85.68	9.09		
전공 적응 정도	잘 적응하고 있다	64.23	9.04	3.406	.035*	97.38	10.83	7.444	.001**
	대체로 적응하고 있다	59.97	7.31			88.30	10.53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59.95	8.48			88.90	14.13		

\*p <.05    \*\*p <.001

## V. 논 의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미래의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행위를 직접 실무현장에서 훈련할 수 있고, 스스로 대상자의 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는 기술 뿐 아니라 강의실에서 얻은 간호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 내에서 양질의 결과를 획득하고, 변화하는 대상자의 상태에 적합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지도자들의 노력과 함께 학생 스스로 지속적인 탐구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공 및 실습관련 특성에서 간호과에 입학하기 전에 간호사 이미지가 대중매체(41.8%)나 입원이나 병원 방문(38.5%)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간호학생을 입학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며, 병원간호사들의 간호사 이미지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과 입학 동기는 대부분 적성이나 사명감보다는 취업률과 부모나 선배들의 권유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 후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소양과 사명감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병원 실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인관계가 간호사로 나타나 실무현장의 간호사들이 학생들과 온화한 관계를 유지하고, 전문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간호 관리자들의 관

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수행능력의 하부 요인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안위도모, 산소 및 영양과 배설, 휴식과 활동 같은 기본간호(3.27)와 대상자의 면담과 관찰, 간호력 작성, 문제해결 등의 간호과정(3.24)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찰과 신체사정 요인(3.02)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대상자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신체를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실무학습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임상실습 중에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훈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오원옥, 2002), 수행능력이 낮았던 대상자의 관찰과 신체사정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실습 전에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자들의 학습모듈 개발이 필요하다는 Sparling(200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본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는 전공에 대한 적응 정도가 좋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간호학 전공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적 관심과 실습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급변하는 간호실무 상황을 대비하여 간호학생들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임상실습현장에서부터 스스로 배우고 탐구해야 할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전문적

에 입문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12주의 임상실습을 마친 2개 3년제 간호과 182명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와 김분한 등(1998)이 제시한 임상수행능력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한 19개 문항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Guglielmino(유귀옥, 1997에 인용)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검사(SDLRS)를 기초로 유귀옥(1997)이 번안 하고 수정한 32개 문항으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문항과 상관관계가 0.3 이하인 7개 문항을 제외시켜 25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 대상자의 전공 및 실습 관련 특성과 전체 임상수행능력 및 하부요인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기술적 통계를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전공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 평점은 3.19로 나타났으며 각 하부 요인별 평점을 비교해 보면 제 1요인 간호과정은 3.24, 제 2요인 주요 간호중재는 3.18, 제 3요인은 심리·사회적 간호는 3.20, 제 4요인은 간호교육은 3.15, 제 5요인은 관찰과 신체사정은 3.02, 제 6요인은 기본간호는 3.27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전공에 대한 적응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F= 3.406, p= .035$ )과 자기주도적 학습( $F= 7.444, p= .001$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367, p= .001$ ).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임상실습 교육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있고 타당한 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3. 대상자수를 확대하여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권성복, 지성애, 정경남 (2002). 간호학생이 기대하는 임상실습지도자의 역할.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2), 284-294.
- 권인수 (2002).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5), 706-715.
- 김분한, 김소야자, 이정섭, 탁영란, 김희순, 최의순, 신경림, 최경숙, 김귀분, 김광주, 이소우, 김금순, 이숙자, 김윤희, 이경혜, 정영숙, 송지은, 박정호 (1998). 간호사 국가시험 방향설정을 위한 임상수행능력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아동간호학, 간호행정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8(4), 1075-1087.
- 오원옥 (200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2(5), 684-692.
-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1990).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3, 17-29.
- 이원희, 김조자, 유혜라, 김기연, 권보은, 김상희 (1998). 임상교육의 임상지도자 (preceptor) 활용모델 적용효과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0(2), 281-288.
- 이정희, 성영희, 정연이, 김정숙 (1998).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간호활동시간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249-263.
- 유귀옥 (1997).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경희, 엄영란, 서연옥, 송라운, 전경자, 조남옥 (2000). 간호학생과 신규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47-159.
-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2), 364-371.
- Hienstra, R. (1994). Helping learners take responsibility for self-directed activities. *New Directions for Adults and Continuing Education*, 64, 81-97.
- Jerlock, M., Falk, K., & Severinsson, E. (2003). Academic nursing education guidelines: Tool for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ursing and Health Sciences*, 5, 219-228.
- Kessenich, C. R., Guyatt, G. H., & DiCenso, A. (1997). Teaching Nursing Students Evidence Based Nursing. *Nurse Educator*, 22(6), 25-29.
- Lunyk-Child, Crooks, D., Ellis, P. J., Oforu, C., O'Mara, L., & Rideout, E. (2001). Self-Directed Learning: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0(3), 116-123.
- Patterson, C. Crooks, D., & Lunyk-Child, O. (2002). A New Perspective on Competencies for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2), 25-31.
- Schmidt, S. B., & Fisher, J. C. (1992). Effectiv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elf-learning modules.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3(2), 54-59.
- Slusarski, S. B. (1994). Enhancing self-direction in the adult learner: Instructional techniques for teachers and trainers.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64, 71-79.
- Sparling, L. A. (2001). Enhancing the learning in self-directed learning modules.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17(4), 199-205.

- Abstract -

##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Yang, Jin-Ju\* · Park, Mi-Yo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at two nursing colleges with students in a 2 year undergraduate nursing program. Data were collected from 182 students by means of self reporting questionnaires from October 1 to October 8, 2004.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10.0 PC program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The questionnaire of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consisted of nineteen items based on a five point summated rating scale and was categorized into six subscales by factor analysis. The six subscales are nursing process, major nursing intervention, education for clients, observation and physical examination, and fundamental nursing. The more adaptable to major, the higher clinical competency ( $F= 3.406$ ,  $p= .035$ ) and self-directed learning ( $F= 7.444$ ,  $p= .001$ ).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 $r= .367$ ,  $p= .001$ ). **Conclusion:** we conclud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Health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Cheongam College